

한국타이어

전국 기능인대회에서
우수기능인상 수상
—생산1과 김갑동 사원—

지난 10월 18일 경남 창원 KBS공개홀에서 제24회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입상자에 대한 포상식이 있었다.

당사에서는 노조사무장 및 (영)생산1과 성귀현 주임, 그리고 우수기능인에 선정된 김갑동 반장이 참석하여 500만원의 상금 및 노동부장과 표창, 부부동반 전국 산업시찰(11/14~11/17), 청와대예방(예정) 등의 포상이 주어졌다.

기능인을 우대하기 위해 기능장려법 제정후 처음 실시된 이번 대회는 기능인 우대 풍토 조성을 위하여 기능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근속 우수기능인 및 기능인 양성에 공로가 현저한 자를 발굴 포상한 것이다. 선발기준이 까다롭다는 점 외에도 한 직장 한 공정에서 15년 이상을 근무해야 자격조건이 주어지고 서류 제출후 개선활동에 대한 현장 검사까지 실시하였다.

김갑동 반장은 1970년 9월에 입사 18년동안 한 직종에서 생산업무를 맡고 있으며, 작업공

정의 개선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생산성제고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상하였다.

제5회 사무부문 전사
QC 분임조 발표대회

제5회 사무부문 전사 QC분임조 발표대회가 10월 11일 본사교육장에서 임승봉 전무, 윤여현 부장을 비롯한 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사무 분임조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회사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발표대회에서 임승봉 전무는 분임조활동에 있어 주제를 너무 광범위한 것을 잡아 활동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일상 업무에서 문제점을 찾아 그것을 분임조 주제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발표대회는 분임조간의 상호개발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대회의 최우수상은 기술연구소 기술관리실 눈동자분임조가 "P/C 사용 효율화방안"으로 수상하였고, 우수상은 영등포공장 제조2과 KNOW HOW 분임조의 "G/T SIDE구 김방지로 원가절감", 생산기술본부 제조기술부 JIT분임조의

"TIRE선별 SYSTEM개발", 인천공장 품질기술과 등대분임조의 "동절기 FORMING 최적조건 설정으로 불량감소"가 수상하였으며, 장려상에는 본사 기획조사부 엘리트 분임조, 경리부 열매분임조, 기술연구소 제2설계부 GIANT분임조와 BLE-COM분임조, 생산기술본부 설비개발부 BRAINS분임조, 대전공장 정련과 청운분임조가 수상하였다.

서울시 중·고교
일반사회과 교사
산업시찰단 방문

서울시 중·고교 일반사회과 교사 산업시찰단 일행(43인)이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회사소개 및 생산현장 견학을 하였다.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기업관을 인식시키기 위한 전경련의 경제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산업현장 견학은 당사를 비롯하여 금성사, 현대자동차, 포항종합제철, 코오롱 및 삼성전자등을 방문할 계획이며, 교육일선에 있는 교사들에게 바른 경제관과 산업의 실상을 이해시켜 학생들에게 오늘의 경제실상을 바르게 전달함과 아울러 학교교육에서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을 전파, 교육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금호타이어

박종대 사원 「전국 최다 제안왕」으로 선정

제2회 전국 제안활동 사례발표대회(한국능률협회 주관)에서 당사의 박종대 사원(제조1부 2과)이 「전국 최다제안왕」으로 선정되었다. 또한 이번 대회에서 교대감독과 남상기 주임이 개선사례 부문의 금상을 수상했으며, 전사부문에서 곡성공장의 나득수 사원이 금상을 수상, 금호의 이미지를 대외에 과시했다.

이번 대회는 10월 23~24일 이틀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렸는데, 1~2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전국의 23개업체가 참가, 각 부문별 대상을 놓고 열띤 경합을 벌였다.

평소 제안활동을 성실히 해왔던 이번 수상자들은 상금 20만원씩의 별도 포상을 회사로부터 받았으며, 부상으로 일본 해외전문출장도 갖게 되었다.

'89년도 하반기 그룹 대졸 신입사원 95명 선발

'89년도 하반기 그룹 대졸 신입사원 95명(작년 대비 50% 수준)이 선발되었다.

9월 중순, 학교추천과 서류전

형에 의해 선발된 이번 신입사원들은 10월 12일, 그룹설명회에 참석했으며, 11월 5일 TOBIC TEST와 인성검사를 받았다.

이들 신입사원들은 계열사 순회교육(11월 22~25일)과 컴퓨터교육(12월 1일~90년 1월 중순까지)을 수료한 뒤 각 계열사로 배치될 예정이다.

곡성공장 준공식 거행

금호가족의 염원속에 '87년 착공되었던 곡성공장이 2년여의 노력 끝에 완공되어, 지난 10월 28일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박성용 회장을 비롯한 계열사 사장, 임직원, 도군 단위 관계기관장, 곡성군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되었다.

노인기 상무(곡성공장장)의 공장 준공 경과보고로 시작된 이날의 준공식에서는 공장 건립에 공이 큰 관계기관 및 사원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되었으며, 주민대표의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이어서 박정구 사장의 기념식사와 박성용 회장의 치사가 있었고, 송원풍 전남도지사 및 신태호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의 기념 축사가 있었다.

이날 기공식사에서 박정구 사장은 「곡성공장 가동에 따른 다공장체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문간 공장간 협력체제를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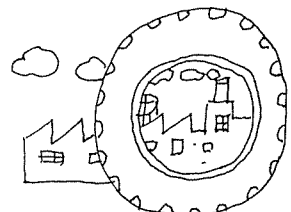
지하여 곡성, 송정, 본사가 삼위일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할 때 회사의 변영된 성장과 평생직장의 터전이 확고하게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준공식이 끝나고 박성용 회장을 비롯한 참석인사들은 공장 및 폐수처리장을 시찰하고 기념식수를 하였다.

이날 준공된 곡성공장은 '곡성군 입면 서봉리' 소재 15만 3천평 부지에 3천 400억원의 건설비를 투입, 연건평 3만평의 세계 최신의 자동화된 트럭, 버스, 승용차용 래디알 타이어 공장으로서 일산 210톤, 연산 520만본의 타이어 생산능력을 갖추었다.

또한 수요자에게 보장된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성능시험을 위한 자체 주행시험장을 갖추었으며, 특히 공해 및 환경예방을 위해 약 130억원을 투입, 폐수처리장 등 공해시설을 갖추었다.

한편, 회사에서는 금호의 제2의 도약을 가져오게 될 곡성공장 준공을 기념하여 전사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우성타이어

기우회 창립기념
바둑대회 개최

(주)우성산업은 지난 10월 21일 프로 기사 강철민 7단을 초청하여 우성그룹 최주호 총회장님을 모시고 임직원 및 회원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성기우회 창립을 기념하는 친선 바둑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우성기우회 창립대회는 그룹내 바둑 보급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바둑 모임을 통한 임직원간의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여 인화단결을 위한 건전한 친목단체로서 회사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대회에서는 우성그룹 최주호 총회장님과 프로기사 강철민 7단의 기념대국과 지도단면 대국이 있었으며, 장기대회도 병행되었다.

이날 창립기념대회는 급수별 3조로 나누어 리그전으로 실시되었는데, 1조 우승에는 타이어 영업부 김영춘 과장, 2조 우승에는 모직수출부 김민영 씨, 3조 우승에는 경리부 강성구 씨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함과 함께 푸짐한 부상을 받았다.

한편 이날 대회에서 기우회 초대 회장으로는 모직영업부 최승우 부장이 선출되었으며,

총무로는 타이어 특판부 이구역 과장이 뽑혀 기우회를 위하여 수고를 하게 되었다.

TBR 교육 실시

(주)우성산업 타이어 영업부에서는 일선 영업사원의 기술 향상 및 고객 애프터 서비스 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9일부터 3차에 걸쳐 미쉐린사의 Mr. F. ELZA-GUIRRE 기술부장을 강사로 초빙한 가운데 TBR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각 지점의 일선 영업사원 및 A/S요원의 기술향상을 통하여 고객에 대한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맨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하여 실시되

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고속 터미널내에 있는 고속버스 정비소의 현장실습도 겸함으로써 어느때의 교육보다도 강도 높은 교육 및 실습이 되었다.

교육생들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타이어의 매력은 역시 TBR 타이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일선에 나가 철저한 서비스 봉사정신을 발휘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영업사원으로서의 자기발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도 다짐했다.

「우성가족」 사보 창간

우성인의 뜻과 기상이 담긴 사보 「우성가족」 창간호인 11월호가 기대속에 발간되었다.

한마음의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는 우성인의 긍지가 담긴 우성 사보는 폭넓은 대화의 광장이자 제3의 저널로서 이 사보를 통해 우성가족이란 커다란 한울타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사보 「우성가족」 편집자들은 창간호를 시발로 앞으로 우성인의 한마음, 한뜻을 한데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또한 전우성인의 삶의 현장이요 미래의 철학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사보 「우성가족」은 매월간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